

한파 속 어르신 건강 · 안전 지킨다

익산시, 403개 경로당 한파쉼터 지정... 시설 점검 · 난방비 지원 등
상시 모니터링 · 물품 지원 · 통리장 연계 등 노인 돌봄 강화 '총력'

익산시가 매서운 한파 속 난방 취약 계층인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 지키기에 나섰다.
익산시는 한파쉼터로 지정된 경로당 운영과 노인일자리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어르신들이 난방비 걱정 없이 한파를 견딜 수 있도록 익산 전역의 403개 경로당을 한파 쉼터로 지정하고 난방 안전지대 사수에 총력을 기울였다.
앞서 시는 안정적인 한파쉼터 운영

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난방기기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예산 3,800만원을 투입해 노후로 수리가 불가능한 10년 이상 사용 보일러 20대를 신속하게 교체했다.
특히 올해 한시난방비 등 사업비 120만원을 모든 경로당에 신속히 지원해 한파대책 기간인 3월 15일까지 한파쉼터 이용자가 안전하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대비를 마쳤다.
아울러 야외활동 자제 등 국민행동요령을 부차해 한파 · 대설에도 안전

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한파쉼터로 지정된 경로당은 교령자 뿐만 아니라 수도계량기 동파나 보일러 고장으로 주거에 불편을 겪는 주민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개방된다.
시는 한파에 대비해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 노인의 돌봄에도 매진하고 있다.
시는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자 4,180명의 안전 상황을 확인하고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를 이용하는 약 1,700세대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해 위기상황에서 응급요원과 소방서에 연계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또한 읍면동 통 · 리장을 독거노인과 연결해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을 살피고, 상황 발생 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도 시는 혹한기 노인일자리 근무자 보호 조치로 활동시간 탄력 운영과 현장응급조치 교육 등을 진행하고, 야외 활동은 가급적 중지하고 실내로 전환해 진행할 예정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가 매서운 한파 속 난방 취약계층인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 지키기에 나섰다.

군산시, 귀어창업 · 주택구입 지원사업 추진

만65세 이하 귀어업인 · 재촌비어업인 대상... 창업자금 최대 3억 · 주택구입자금 최대 7500만원

군산시가 '2025년 귀어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다음달 7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귀어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어업창업 및 주택 마련 자금을 저금리 융자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속가능한 어촌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창업자금은 사업대상자당 최대 3억원 이내, 주택 구입 자금은 1세대당 최대 7,500만원 이내이다. 대출금리는 연 1.5%로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방

식이며, 최종 대출금액은 대출 심사 및 대출자의 신용 상태에 따라 결정된다.
대상자는 만 65세 이하인 △군산시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 지역에서 거주한 귀어업인 △군산시에 거주한 지 1년 이상이고 최근 5년 이내에 어업 또는 양식업 경영경력이 없는 재촌비어업인(자)이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2026년 12월 까지 대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대출금 수령 후 상환기간 동안은 군산시에 거

주하며 전업으로 어업 또는 양식업을 경영해야 한다.
사업 신청은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필요서류와 함께 군산시청을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누리집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은 귀어귀촌 종합센터 누리집(<https://www.sealife.go.kr>)을 참고하면 된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사랑장학재단, 행복기숙사 입주생 모집... 21일까지

총 4곳 입주생 24명 선발

익산시가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는 지역 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학업 환경을 조성한다.
(재)익산사랑장학재단(이사장 정현

을 익산시장)은 한국사회진흥재단과 협약을 통해 서울에 위치한 행복기숙사 추천 입주생 24명을 선발하고 기숙사비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행복기숙사는 △흥제 △동소문 △개봉동 △독산동 등 4곳이며, 기숙사비

는 1인당 월 14만원(연 168만원)을 지원한다. 행복기숙사 입주생 신청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재)익산사랑장학재단 누리집(isaf.or.kr)을 참고하거나 전화(063-859-5820)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11월 짬뽕페스티벌 준비 시동

올해도 짬뽕특화거리서... 색다른 먹거리 · 볼거리 제공

작년에 좋은 반응을 얻은 '짬뽕페스티벌'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군산시가 연초부터 시동을 걸고 있다.
'군산짬뽕' 먹거리 관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짬뽕페스티벌은 11월 중 짬뽕특화거리(장미동 동령길)일대에서 개최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22년부터 시작한 이 축제는 쌀쌀한 가을철 사람들의 속을 확 풀어주는 얼큰한 '군산짬뽕'이 주인공이다. 작년에는 옛 도심속에서 축제를 찾은 시민 및 관광객에게 짬뽕의 다양한 매력을 선보였다.
축제의 주무대인 군산의 짬뽕특화거리는 '군산짬뽕'을 대표하는 노포와 신흥반점이 당당하게 '맛의 전설'을 지켜가고 있다. 먼저 1950년대 초 화교인의 창업으로 시작되어 대를 이어온 중식당 '빈해원'은 짬뽕특화거리의 터줏대감이다.
이곳 외에도 흥영장, 군산점보짬뽕, 중화반점, 중화반점1968, 민규짬뽕, 중

화짬뽕, 오징어짬뽕, 개북동중식당 등이 입점해 군산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짬뽕의 맛과 군산의 정치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짬뽕특화거리는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와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시에서 조성하여 운영 중이다.
군산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색다른 짬뽕축제를 보여주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짬뽕특화거리 입점 업소는 물론, 실외 조리장에서 중식 조리도구인 웍의 진수와 불맛을 담은 먹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축제로 거듭나기 위한 축제 환류와 대대적인 축제 홍보에 나서는 한편 운영의 묘미를 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과거 침체된 구도심의 활력을 되살리고 짬뽕의 도시 군산의 매력을 살리는 새로운 짬뽕축제로 살리기 위해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부정유통 단속 우수기관 표창

군산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근절 기여 공로 인정

군산시가 9일 '2024년도 지역금융 활성화 유공' 분야에서 부정유통 단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시는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이상거래 확인 등으로 3건을 적발해 486만3,000원을 환수하는 등 부정 유통 근절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상을 받게 됐다.
현재 시는 할인 발행뿐만 아니라 추진 중인 각종 정책사업에 상품권을 연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상시 모니터링 및 일제 단속기간을 지정 · 실시하여 △상품권 부정유통 적극 단속 △포상금 지급 등 신고 문화 활성화를 유도하면서 건전한 상품권 유통 질서 확립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군산시는 올해 민생경제 회복

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을 전년도 대비 1,120억원을 증액해 4,120억원 을 발행했다. 월 구매 한도는 월 50만 원까지 증액했으며, 골목상권 소비 촉진을 위해 모바일 및 카드 결제 시 월 2만원 한도 내에서 결제액의 10%를 캐시백 인센티브로 적립시켜주는 정책도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을 기회로 앞으로 건전한 상품권 거래문화를 선도하고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모바일 및 카드 상품권은 이달 2일부터 충전이 가능하며, 만 65세 이상(1960년생은 생일 지난 후) 시민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지류 상품권은 오는 20일 오전 9시부터 4개 금융기관(농협, 전북은행, 새마을금고, 신한)에서 구매할 수 있다.
/군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겨울철 동파 예방

종합대책 상황반 가동

익산시가 겨울철 상수도 시설 동파 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3월 15일까지 '종합대책 상황반'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상황반은 상수도과 직원 27명으로 구성됐으며, 수도계량기 등 동파가 우려되는 수도시설물을 관리하는 긴급복구반을 상시 가동한다.
긴급복구반은 동파 발생 시 긴급 복구 자재와 비상 급수 장비를 동원해 신속하게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는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 행동요령 안내문 배부 등 다양한 대책을 통해 전달하고 있다.
주요 요령을 보면 △계량기 함보온재로 채우기 △한파 시 수도꼭지 약하게 열어두기 △계량기 동결 시 헤어드라이어를 사용하거나 미지근한 물부터 점차 따뜻한 물로 천천히 녹이기 등이 있다. 동파 시에는 상수도과(063-859-4413, 4416)로 신고하면 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대설 · 한파에

시설하우스 관리 당부

익산시가 대설 · 한파로 인한 시설하우스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 나선다.
9일 익산시에 따르면 시는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7일부터 지역 시설 하우스 농가에 피해 예방을 위한 관리요령을 전파했다. 시는 대설 · 한파 대비 농작물 시설관리 공문을 발송했고, 농업인이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기상 특보 시 시설 관리요령을 문자 메시지(2,377건)를 통해 홍보하기도 했다.
이번 눈은 습기를 머금고 있어 쌓이면 매우 무겁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 때문에 노후 시설의 붕괴 우려가 있어 사고 예방에 주의해야 한다.
폭설 시 시설 원에 농가는 외부 보온 덮개와 차광망을 걷어 두거나, 보강 지주를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하우스 지붕과 동간 쌓인 눈을 수시로 제거하고, 필요에 따라 난방기를 가동해야 한다.
과수와 인삼 농가의 경우 과수원 방조망과 인삼 차광막을 걷어 붕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 · 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국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